

민·군간 갈등관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충청남도 계룡시·논산시를 중심으로*

최 병 학**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
| II. 이론적 논의 | V. 결 론 |
| III. 분석모형의 설정과 연구설계 | |

● 논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의 민·군 갈등관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 제도적 특성, 신뢰협력, 갈등정도 및 갈등관리 수준의 변수간 관계를 선형 구조방정식(Linear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적 특징, 제도적 특성이 신뢰협력과 갈등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신뢰협력 역시 갈등관리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갈등정도

* 이 논문은 충남발전연구원 2014년 기본과제로 제출된 것이며, 분석에 유익한 도움을 보내준 (사)한국갈등관리학회 연구위원회 최현묵 위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 현 (사)한국갈등관리학회 회장,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겸 충남대학교 군사학부 겸임 정교수,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학회 회장, 세종특별자치시 갈등관리심의위원장, 전 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회장, 국무총리 안전관리기획단 정책자문관 역임, 주요 관심분야는 갈등관리, 재난·안전·위기관리, 인적자원개발 등이며, 주요 연구실적은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2013), 「전환기 공공갈등관리의 제도화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의 제정의 예시적 검토를 중심으로」(2014),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정책: '자치발전' 연재중」(2014) 외 다수가 있다. (연구실) 041-840-1230, (E-mail) bhchoi@cdi.re.kr

가 갈등관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하위 차원에서는 갈등관리수준 중 갈등시스템과 갈등관리 제도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군갈등에는 불안감이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협력 부문에서는 지역발전 노력과 공동체의식이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으로는 갈등이 심할 수록 신뢰협력은 높으나 갈등관리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신뢰협력은 갈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풀이되며, 갈등관리 수준은 민·군 양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현재 충청남도 지역의 갈등관리 관련 제도는 그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역 차원의 민·군갈등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정비가 중요하다.

주제어 : 민·군갈등, 갈등관리 수준, 구조방정식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 갈등을 토해내는 ‘토갈사회(吐葛社會)’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갈등은 심각한 사회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2010년 기준 갈등의 순위는 OECD국가 중 4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바 있으며, 한국의 소송사건은 2010년 한 해 634만 건으로 일본에 비해 60배가 넘는 소송건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은 소송에 관여되어 있을 정도로, 이미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 ‘소송국가’, ‘균열국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강성철 2014).

사실 사회적 문제는 모두가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가의 정책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다양한 사회주체인 국가(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등은 국가인 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혹은 CS(Customer Satisfaction)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부서 등을 운영하며 갈등관리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렇듯이 갈등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감히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하지만 민·군간 갈등부문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대안적 분쟁해결)을 비롯한 갈등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노력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로써 필수불가결한 국가의 요소인 군의 특성상 주민의 피해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클 것이다. 군은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국가의 존재와 직결되는 중요성을 가지며, 국가간의 대립된 정책과 이익 등의 갈등을 완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박덕근·김태훈·오정림·박정훈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민군갈등의 수준을 진단하고 그 영향요인과 인과구조를 파악해 지속가능한 민·군간의 상생·화합의 방법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방법론상으로 본 연구는 실증적, 경험적 연구방법을 토대로, 민·군간 갈등관리의 수준을 파악하고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갈등관리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역적, 제도적 특성과 갈등정도, 신뢰협력의 네 가지 구성요인을 설정, 갈등관리 수준과의 인과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성요인들은 선행연구의 고찰과 연계하여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비롯한 문헌조사를 통해 이론적 논의를 거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방법에 관해서는 분석단위는 개인이 될 것이고, 분석대상은 지역의 민군갈등 관련 사회현상이 될 것이며, 분석수준은 지역적 수준(범사회적 수준)이 될 것이다. 결국 본 연구는 군부대가 위치한 광역자치단체의 이해관계자인 주민·공무원·군인들이 느끼는 갈등의 정도와 신뢰협력의 정도가 갈등관리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며, 더불어 해당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제도적 특성 역시 이들의 인과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의 영향력과 매개효과까지 검증하여 보다 구체적인 갈등관리 수준의 결정요인을 규명해 효과적인 민·군간 갈등관리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갈등과 갈등관리

갈등의 사전적 정의는 칩과 등나무가 서로 얹히는 것처럼, 개인 간 혹은 집단 간 목표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서로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이다. 이는 ‘con(함께)’과 ‘fligere(충돌, 부딪침, 다툼)’의 합성어(confliger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여 여럿이 다툰다는 의미를 가지며, 인간내면의 상충 때문에 일어나는 심리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그 개념은 심리학에서 출발하여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의 학문적 발달을 거쳐왔다.

행정학에서의 갈등은 Deutch(1973)가 ‘양립불가능한 행위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하면서 폭넓은 접근을 한 바, 학자들마다 그 주체와 범위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Schmidt & Kochan(1972)은 목표의 양립불가능성, 상대방의 목표추구를 방해하는 행동, 자원의 공유·독립성, 활동의 상호 의존성을 기준으로 갈등과 경쟁의 개념을 비교·대조하면서 갈등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Brown(1983)은 정부간 관계의 시각에서 갈등을 설명하며, 정책이 형성되는 공동영역에서 갈등당사자간 정책지향의 차이, 관할권 투쟁, 대상집단의 지지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의한 바 있다. 국내 학자 중에서는 박동서(1987)가 갈등을 ‘개인이나 집단 등 행동주체 간에 현재적·잠재적으로 나타나는 동태적, 대립적인 상호작용과정’으로, 김영중(1996)은 ‘양립불가능한 목표달성과 자원의 제약이라는 상황 아래 이를 인식한 관련당사자 사이에 형성되는 동태적 상호관계’로, 김기태(1966)는 ‘조직 내에서 목표의 양립, 자원과 업무배분의 비합리, 지각상의 차이 등이 존재할 때, 행동주체 간에 일어나는 대립적 내지 적대적 상호작용’으로 갈등을 정의하였다(최성욱 외 2013).

따라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정리하면, 갈등이란 각각의 주체들이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혹은 가치에 대한 경쟁을 비롯한 다양한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갈등관리는 Bercovich(1984)에 따르면 갈등이 확대·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즉 갈등 관리 그 자체가 갈등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갈등해소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갈등관리는 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조승현·전영옥 2011). 또한 Robey(1982)는 갈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강성민 외(2013)는 갈등의 해결보다는 갈등의 수준에 대한 조절로 갈등의 순기능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관리행위라 주장한다.

특히 행정학에서는 갈등관리에 관한 논의가 주로 조직 내 혹은 조직 간의 갈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는데, 고전적인 접근방법에 따르면 갈등은 조직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라 규정하고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이상적인 것이라 보았다. 즉, 직무의 명확한 규정, 직위간 관계의 구체적 규정, 직위에 적합한 사람의 선발과 훈련을 통하여 갈등을 제거하는 것이라 보았다(오석홍 1996). 또한 정부정책과 관련한 갈등관리에는 다양한 방식이 소개되고 있는데 협상, 조정, 화해조정, 조정적 중재, 중재 등이 대표적인 방식들로 제시되고 있다(이선우 2003).

결국 갈등관리는 사회일반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문제의 해결을 통한 편익의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민·군갈등의 경우 국가 혹은 사회 전체의 불특정 다수에게는 편익이 돌아가는 반면, 군부대가 주둔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주변인에게는 오히려 여러가지 형태의 비용과 희생을 부담시킴으로써 집단적인 갈등의 유발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권경득·최병학 외 2007).

2. 민·군갈등

민·군갈등은 민·군관계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본래 민·군관계는 가치중립적 개념으로 여러 유형들을 자체 내에 포괄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민과 군 간의 대립 혹은 충돌 등에 관심을 갖는 민·군갈등은 앞으로 새롭게 접근해야 할 연구분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군갈등 역시 지배적인 이론 혹은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민·군관계의 유형을 통해 설명되는 개념으로 인식되는 바, Harold (1963)는 한 국가에 있어서 대외정책결정이라는 측면에 맞추어 민·군관계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지도자와 민간정치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관계라고 보았다. 그리고 오래 전에 Morris(1964)는 민·군관계를 군국주의로 이해하여 ‘계획된 군국주의’(designed militarism)는 군부가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군부가 의도적으로 민간정치과정에 관여하여 확정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며, ‘반동적 군국주의’(reactive militarism) 민간제도가 취약하거나 대내외 정책실패에 대한 반응으로서 군부가 정치에 관여하는 후진국의 대부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예기치 않은 군국주의는 흔히 선진국의 형태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Huntington(1959)이 언급하는 민·군관계는 어느 사회에서나 상호의존적 요소를 구성된 체계로 보는데, 정부에 있어서 군사조직이 차지하는 공식적 구조상의 지위, 군과 국민의 관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반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군대집단과 민간부문 간의 상호작용 및 그 내용, 군 장교집단과 민간엘리트간의 관계로서 국가사회 구조 내에서 민군엘리트 간에 이루어지는 역할분담 및 상호경쟁과 갈등의 양상, 군부와 민간 이익집단과의 관계라는 네 가지 차원의 비정치적인 국면의 넓은 의미로 생각하였다(최병학 2004).

따라서 민·군갈등이란 민간과 군 사이에 발생하는 민·군관계상의 갈등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군갈등은 주로 국방정책 추진이나 군부대의 입지로 인해 해당 지역에 발생하는 갈등으로 공공갈등과 정책갈등의 성격을 띤 복합적 형태를 가지며, 1990년대 이후 정보화, 민주화, 지방화와 더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명숙 2013).

3. 갈등관리의 주요 구성요인

갈등관리는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지배적인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구성요소를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최인옥·김한얼(2012)는 이를 조직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분류하였는데, 조직 내적 요소는 갈등관리 지원체계, 갈등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리더와 갈등관리 실무자의 관심도, 교육훈련, 갈등관리 업무기간 등으로 분류하였고, 조직 외적 요소는 갈등관리 관련 정책과 외부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회연결망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김영중(2008)은 갈등관리전략을 전략의 선택 배경과 전략의 결과 및 영향으로 구분하였는데, 전략의 선택배경에서는 갈등요인(정책성격, 정책제도, 정책환경), 갈등양태(갈등구조, 갈등진폭, 갈등기간), 갈등관리체계(관리조직, 리더십)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전략의 결과 및 영향에서는 갈등관리전략, 직접적 결과, 갈등영향으로 구분한 바 있다.

하혜영(2007)은 갈등해결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갈등관리 요인군, 갈등특성 요인군, 갈등환경 요인군으로 구분하였다. 갈등관리 요인군은 행정적 갈등관리 방식, 정책유인, 주민참여의 수준으로 분류하였고, 갈등특성 요인군은 갈등이슈의 특성, 갈등당사자의 유형 및 갈등대상의 정책규모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환경 요인은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 정치적 영향을 선정하였다.

김도희(2001)는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행정적 요인(주민참여, 정보공개), 경제적 요인(재산적 가치), 기술적 요인(시설의 위해성과 위험성, 정부불신), 환경적 요인(환경단체 및 언론)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태근(2014)은 갈등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적 요인, 행정적 요인, 단체장 요인, 경제적 요인, 지역의식 요인, 지역수준 요인, 지역규모 요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역적 특성, 제도적·정책적 특성, 갈등정도를 갈등관리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신뢰협력을 매개변수로 설정해 갈등관리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규명하고자 한다.

III. 분석모형의 설정과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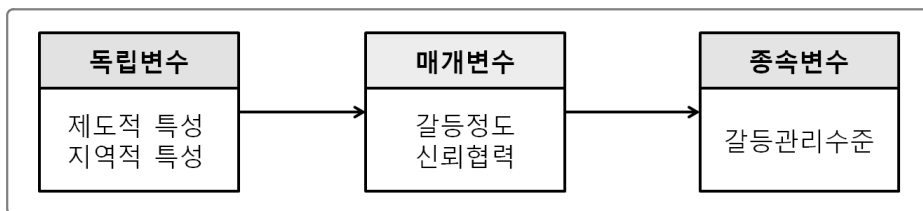
1. 분석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군부대가 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역적 특성, 제도적 특성 그리고 갈등정도 및 신뢰협력이 갈등관리 수준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 더불어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갈등 혹은 갈등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하여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 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러한 특성이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행태(갈등정도, 신뢰협력)를 통해 종국적으로 갈등관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지역적 특성과 제도적 특성은 민·군 양자간의 행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갈등 혹은 신뢰로 나타나는 이러한 행태는 결국 갈등관리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제도적 특성은 갈등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지역적 특성은 갈등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제도적 특성은 신뢰협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지역적 특징은 신뢰협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갈등정도는 갈등관리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신뢰협력은 갈등관리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충청남도 민·군갈등 실태분석 및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조사한 설문자료를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설문은 10월 중 충청남도 일원의 주민·군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80부이며, 이 중 남성은 127명으로 70.6%, 여성은 53명으로 29.4%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는 대부분 30~5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민이 81명으로 45%, 군인이 58명으로 32.2%, 공무원이 41명으로 22.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대도시와 도시근교, 농어촌의 비율은 16% 내외로 비슷하다. 인접부대의 성격은 훈련부대가 39.4%로 가장 많고, 행정부대가 25.6%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인접부대가 없는 경우도 16.9%에 달해 본 연구의 범위가 비단 군과 아주 근접한 지역 뿐 아닌 충청남도 일원의 문제라는 점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분석은 PASW Statistics 및 Amo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한 문항들은 신뢰도분석을 통해 독립·매개·중속변수를 확정하였으며, 하나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각각 3~5가지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여 이들의 영향요인과 인과구조를 규명하였다.

〈표 1〉 설문응답자의 특성

변수	구 분	빈도	비율	변수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27	70.6	소속	주민	81	45.0
	여	53	29.4		군인	58	32.2
					공무원	41	22.8
연령 대	20대 이하	14	7.8	거주 지역	대도시	28	15.6
	30대	56	31.1		중소도시	95	52.8
					도시근교	29	16.1
					농어촌	28	15.6
	40대	59	32.8	인접 부대 성격	야전부대	18	10.0
	50	43	23.9		훈련부대	71	39.4
					교육부대	10	5.6
					행정부대	44	25.6
	60대 이상	8	4.4		없음	29	16.9
					합계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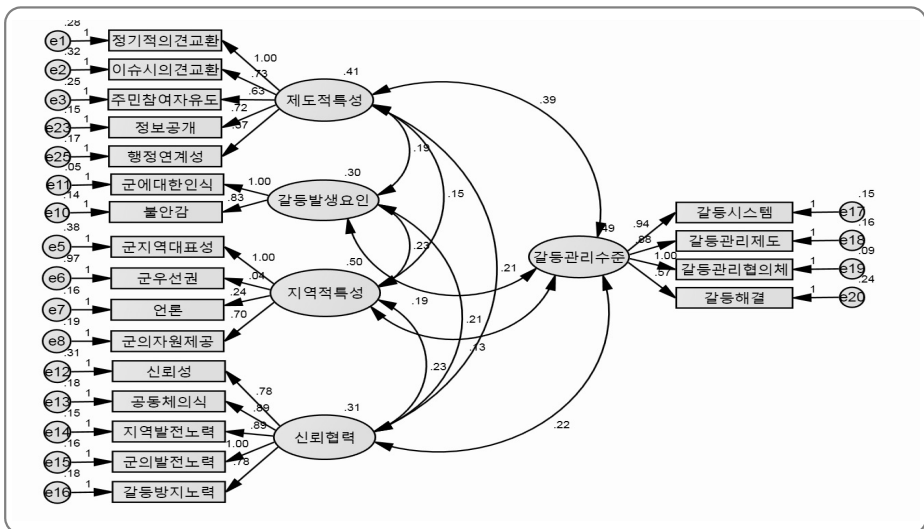
IV.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의 설계 및 분석에 앞서 설문문항 혹은 변수들 간의 관계에 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은 신뢰도 분석·탐색적 요인분석·확인적 요인분석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이는 분석에 이용될 최종모형의 적합수준을 가늠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가능한 향상시켜 연구를 통한 사회현상의 분석·설명에 타당성·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변수를 선정한 바, 탐색적 요인분석 대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하며 이는 요인 간의 관계를 통해 전체적 모형의 적합도 수준을 가늠하고 개별요인에 대한 관측 변수들의 신뢰도 역시 검증할 수 있다(이배영·전진석 2008).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요인모형)은 [그림 2]와 같고, 모형의 적합도에 관해 설명하면 <표 2>와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절대적합지수인 Chi-square값은 358.707(d.f. = 160, $p = .000$)이고, RMR(잔차평균자승이중근)값은 .033, RMSEA(근사 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값은 .083, GFI(적합지수)값은 .837, AGFI(조정적합지수)값은 .783, 그리고 PGFI(간명적합지수)값은 .638을 나타내며, 충분적합도(NFI(표준적합지수) = .819, RFI(상대적합지수) = .786, IFI(충분적합지수) = .891, TLI(터커-루이스지수) = .891, CFI(비교적합지수) = .889) 및 간명적합도(PNFI(간명표준적합지수) = .690, PCFI(간명적합지수) = .749)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합도의 지수는 일반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후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¹⁾

구분	절대적합도							
	χ^2	d.f.	CMIN/DF	RMR	RMSEA	GFI	AGFI	PGFI
값	358.707	160	2.242	0.33	.083	.837	.783	.638
기준	-		≤ 5	$\leq .05$	$< .8$	$\geq .9$	$> .5$	
구분	증분적합도					간명적합도		
	NFI	RFI	IFI	TLI	CFI	PNFI	PCFI	
값	.819	.786	.891	.891	.889	.690	.749	
기준	$> .9$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각 잠재변수들을 구성하는 측정변수들의 타당성의 검증을 위하여 5개의 잠재변수를 가진 요인모형을 설정하였고, 이어서 지표들의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념신뢰도(C.R.) 및 평균분산추출(AVE)를 계산하였다. 개념신뢰도는 측정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되는 주요한 측정치이며, 0.7 이상일 경우 수용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평균분산추출은 개념에 대해 지표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이며, 0.5 이상인 경우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있다(부산대학교 통계연구소 2014).

〈표 3〉에 정리한 바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개념신뢰도 및 평균분산추출은 모두 0.9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활용된 5개 잠재변수 요인의 신뢰도 및 측정모형의 타당도는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후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1) 간명적합도 지수는 증분적합도 지수와 반비례한다. 따라서 간명적합도(PNFI, PCFI)의 기준을 $> .5$ 로 제시하는 선행연구도 있다. 더불어 구조방정식의 적합도를 결정하는 지수 및 기준 역시 학자마다 다르게 제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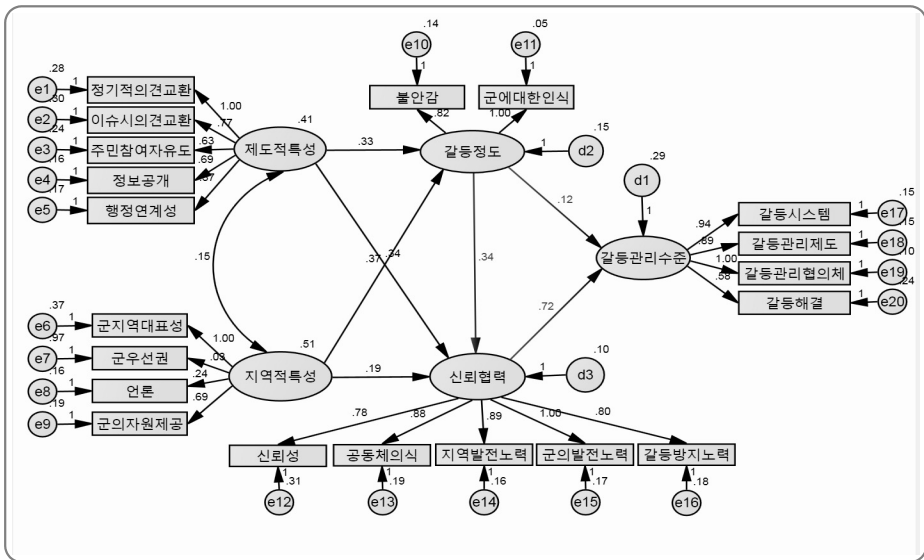
요인	경로	표준화 적재량	표준오차 (S.E.)	평균분산추출 (AVE)	개념신뢰도 (C.R.)
지역적 특성	군우선권 ← 지역적 특성	0.027	0.018	.876	.953
	언론 ← 지역적 특성	0.386	0.027		
	군지역대표성 ← 지역적 특성	0.753	0.102		
	군의 자원제공 ← 지역적 특성	0.754	0.035		
제도적 특성	행정연계성 ← 제도적 특성	0.5	0.019	.940	.987
	주민참여자유도 ← 제도적 특성	0.632	0.029		
	이슈시 의견교환 ← 제도적 특성	0.635	0.037		
	정보공개 ← 제도적 특성	0.764	0.02		
	정기적 의견교환 ← 제도적 특성	0.769	0.038		
신뢰 협력	신뢰성 ← 신뢰협력	0.615	0.023	.945	.988
	갈등방지노력 ← 신뢰협력	0.711	0.07		
	공동체의식 ← 신뢰협력	0.755	0.02		
	지역발전노력 ← 신뢰협력	0.784	0.023		
	군의 발전노력 ← 신뢰협력	0.81	0.022		
갈등 발생 요인	불안감 ← 갈등발생요인	0.768	0.021	.971	.985
	군에 대한 인식 ← 갈등발생요인	0.921	0.022		
갈등 관리 수준	갈등해결 ← 갈등관리수준	0.634	0.017	.966	.991
	갈등관리제도 ← 갈등관리수준	0.839	0.021		
	갈등시스템 ← 갈등관리수준	0.862	0.035		
	갈등해결 ← 갈등관리수준	0.917	0.021		

2. 기초모형 및 수정모형 분석

1) 모형의 적합도

일반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로는 초기모형(default model), 포화 모형(Saturated model), 독립모형(Independence model)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앞서 3장의 분석틀에 의거해 설계한 분석모형은 초기모형의 값이며,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정을 거친 모형은 수정모형이 된다.

[그림 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초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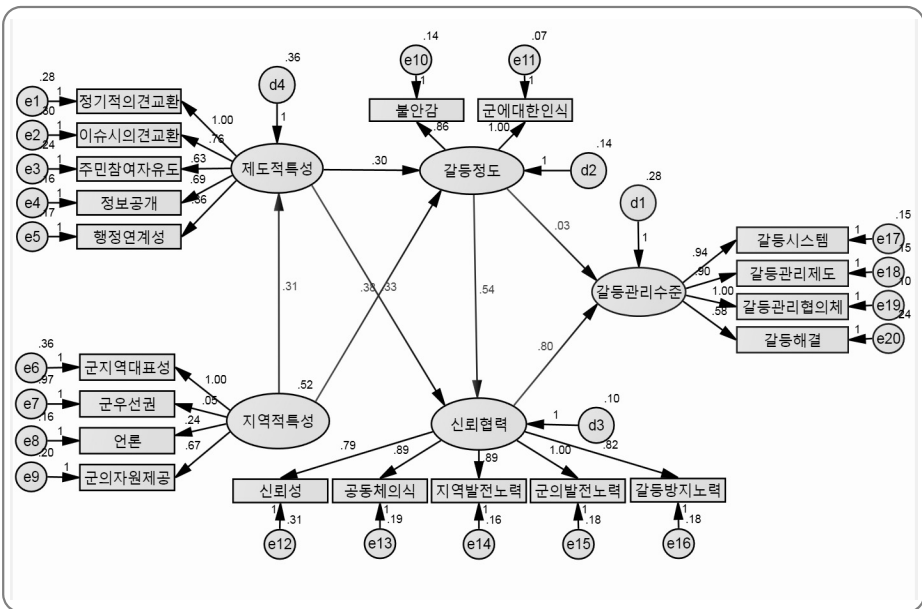


초기모형은 [그림 3]과 같고, 모형의 적합도에 관해 설명하면 <표 4>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절대적합지수인 Chi-square값은 449.331(d.f. = 162, $p = .000$) 이고, RMR(잔차평균자승이중근)값은 .051, RMSEA(근사 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값은 .100, GFI(적합지수)값은 .809, AGFI(조정적합지수)값은 .753, 그리고 PGFI(간명적합지수)값은 .624을 나타내며, 충분적합도(NFI(표준적합지수) = .774, RFI

(상대적합지수) = .735, IFI(증분적합지수) = .843, TLI(터커 - 루이스지수) = .812, CFI(비교적합지수) = .840) 및 간명적합도(PNFI(간명표준적합지수) = .660, PCFI(간명적합지수) = .716)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방정식의 초기모형은 모형의 적합도 향상을 위한 수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수정은 논리적 근거에 유의하여야 한다(이배영·전진석 2008). 본 연구 역시 모형의 수정작업을 거친 바 그 결과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수정모형)



수정모형의 적합도에 관해 설명하면 <표 4>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의 절대적합지수인 Chi-square값은 455.721(d.f. = 163, p = .000)이고, RMR(잔차평균자승이중근)값은 .050, RMSEA(근사 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값은 .100, GFI(적합지수)값은 .806, AGFI(조정적합지수)값은 .751, 그리고 PGFI(간명적합지수)값은 .626을 나타내며, 증분적합도(NFI(표준적합지수) = .771, RFI(상대적합지수) =

.733, IFI(증분적합지수) = .840, TLI(터커 - 루이스지수) = .810, CFI(비교적합지수) = .837 및 간명적합도(PNFI(간명표준적합지수) = .661, PCFI(간명적합지수) = .718)으로 나타났다.

〈표 4〉 기초모형 및 수정모형의 적합도

구분	절대적합도							
	χ^2	d.f.	CMIN/DF	RMR	RMSEA	GFI	AGFI	PGFI
기초	449.331	162	2.774	.051	.100	.809	.753	.624
수정	455.721	163	2.796	.050	.100	.806	.751	.626
기준	-		≤5	≤.05	<.8	≥.9	>.5	

구분	증분적합도					간명적합도	
	NFI	RFI	IFI	TLI	CFI	PNFI	PCFI
기초	.774	.735	.843	.812	.840	.660	.716
수정	.771	.733	.840	.810	.837	.661	.718
기준	>.9						

모형의 수정 결과 적합도에 큰 차이는 없으며, 적합도의 지수별로 각각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 기초모형 및 수정모형의 적합도 변화량은 〈표 4〉를 통해 정리하였다. 수정모형 역시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되어 최종모형으로 확정 후 이후의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2) 경로계수 및 표준화 경로계수 분석결과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결과는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된다. 분석결과 신

- 2) 모형의 적합도가 크게 향상되지 못한 것은 적합도가 크게 향상된 몇 가지 수정제한 모형들이 ultra heywood case에 해당되어 표준화경로계수 혹은 다중상관자승값(SMC)이 0~1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뢰협력은 갈등관리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Estimate = 0.805, C.R. = 4.944, $p = .000$), 갈등정도는 신뢰협력에 역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Estimate = 0.543, C.R. = 5.965, $p = .000$).

지역적 특성은 갈등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Estimate = 0.378, C.R. = 5.286, $p = .000$), 제도적 특성은 신뢰협력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Estimate = 0.331, C.R. = 4.51, $p = .000$). 또한 지역적 특성은 제도적 특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Estimate = 0.308, C.R. = 3.465, $p = .000$), 제도적 특성은 갈등정도에 역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stimate = 0.299, C.R. = 4.306, $p = .000$). (Estimate = 2.394, C.R. = 6.411, $p = .000$).

하지만 갈등정도가 갈등관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대와 다르게 나타났다(Estimate = 0.032, C.R. = 0.205, $p = .838$).

〈표 5〉 분석결과 - 경로계수

경로	경로계수	S.E.	C.R.	p-value
제도적 특성 ← 지역적 특성	0.308	0.089	3.465	.000
갈등정도 ← 제도적 특성	0.299	0.07	4.306	.000
갈등정도 ← 지역적 특성	0.378	0.071	5.286	.000
신뢰협력 ← 갈등정도	0.543	0.091	5.965	.000
신뢰협력 ← 제도적 특성	0.331	0.073	4.51	.000
갈등관리수준 ← 신뢰협력	0.805	0.163	4.944	.000
갈등관리수준 ← 갈등정도	0.032	0.157	0.205	0.838

따라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결과로는 갈등정도가 갈등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모든 잠재변수 간 경로의 영향력은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리할 수 있으며, 갈등정도는 갈등관리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통계적 유의수준 0.05에서 채택되었다.

하지만 위의 〈표 5〉에 나타난 경로계수의 분석결과만으로는 경로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다. 따라서 표준화 경로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의 분석결과를 <표 6>에 정리하고, 이를 통해 경로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표준화 경로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Heywood case라 하여 회귀분석에서의 다중공선성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³⁾ 이러한 경우에는 모형을 재구성하거나 재수정 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분석결과 첫째, 갈등관리수준 → 갈등시스템이 0.86으로 가장 크며, 두 번째로 갈등관리수준 → 갈등관리제도가 0.852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갈등정도 → 부담감이 0.778, 신뢰협력 → 지역발전노력이 0.767, 제도적 특성 → 정보공개가 0.742, 신뢰협력 → 공동체 의식이 0.738, 지역적 특성 → 군의 자원제공이 0.735, 신뢰협력 → 갈등방지 노력이 0.725로 비교적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는 제도적 특성 → 이슈시 의견교환이 0.667로 나타났고, 제도적 특성 → 주민참여자유도가 0.637로 나타났으며, 갈등관리수준 → 갈등해결이 0.632, 신뢰협력 → 갈등관리수준이 0.629, 신뢰협력 → 신뢰성이 0.612, 갈등정도 → 신뢰협력이 0.534, 지역적 특성 → 갈등정도가 0.51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제도적 특성 → 행정연계성이 0.495, 지역적 특성 → 언론이 0.393, 제도적 특성 → 신뢰협력이 0.391, 제도적 특성 → 갈등정도가 0.36, 지역적 특성 → 제도적 특성이 0.346으로 나타나 주로 제도적 특성에 관련한 경로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넷째, 갈등관리수준 → 갈등관리협의체, 갈등정도 → 군에 대한 인식, 신뢰협력 → 군의 발전노력, 제도적 특성 → 정기적 의견교환, 지역적 특성 → 군 지역 대표성, 지역적 특성 → 군우선권은 모형 설계시 분산을 고정시킴으로 유의확률이 계산되지 않아 이들의 영향력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수 없다. 또한 갈등

3) 세 개 이상의 독립변수 간 높은 상관관계 때문에 통계량 결과값(주로 설명력)이 왜곡되어 음수(-) 혹은 한계치 이상의 값이 나오는 현상이다. 앞서 각주2에서 언급한 ultra heywood case의 경우 SMC 추정값이 1.47의 수준으로 나타난 모형도 있었다.

정도 → 갈등관리수준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섯째, 주목할 점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 상에서 잠재변수 간 관계가 주요한 데, 갈등관리수준에는 신뢰협력이 큰 영향을 미치며(0.629), 갈등정도는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여섯째, 신뢰협력에는 갈등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0.534), 제도적 특성은 그보다 낮은 영향(0.391)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은 갈등관리수준과 관계된 경로상의 영향력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일곱째, 갈등정도에는 지역적 특성이 큰 영향(0.5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적 특성은 보다 낮은 영향(0.3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제도적 특성에는 지역적 특성이 0.346의 비교적 낮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은 제도적 특성(0.346)보다는 갈등 정도(0.51)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홉째, 따라서 잠재변수 간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신뢰협력 → 갈등관리수준이 0.629로 가장 높고, 갈등정도 → 신뢰협력이 0.534, 지역적 특성 → 갈등정도가 0.51, 제도적 특성 → 신뢰협력이 0.391, 제도적 특성 → 갈등정도가 0.36, 지역적 특성 → 제도적 특성이 0.3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분석결과 - 표준화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계수
제도적 특성 ← 지역적 특성	0.346*
갈등정도 ← 제도적 특성	0.36*
갈등정도 ← 지역적 특성	0.51*
신뢰협력 ← 갈등정도	0.534*
신뢰협력 ← 제도적 특성	0.391*
갈등관리수준 ← 신뢰협력	0.629*
갈등관리수준 ← 갈등정도	0.025
주민참여자유도 ← 제도적 특성	0.637*
이슈시 의견교환 ← 제도적 특성	0.667*

경로	표준화계수
정기적 의견교환 ← 제도적 특성	0.773
군의 자원제공 ← 지역적 특성	0.735*
군우선권 ← 지역적 특성	0.038
군 지역대표성 ← 지역적 특성	0.767
갈등시스템 ← 갈등관리수준	0.86*
갈등관리제도 ← 갈등관리수준	0.852*
갈등관리협의체 ← 갈등관리수준	0.91
갈등해결 ← 갈등관리수준	0.632*
언론 ← 지역적 특성	0.393*
정보공개 ← 제도적 특성	0.742*
행정연계성 ← 제도적 특성	0.495*
부담감 ← 갈등정도	0.778*
군에 대한 인식 ← 갈등정도	0.899
갈등방지노력 ← 신뢰협력	0.725*
군의 발전노력 ← 신뢰협력	0.791
지역발전노력 ← 신뢰협력	0.767*
공동체의식 ← 신뢰협력	0.738*
신뢰성 ← 신뢰협력	0.612*

* 0.05수준에서 유의함

3)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다중상관자승 : 설명력) 분석결과

다음으로는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연구모형 내 각 내생 잠재요인 분산의 몇 %가 다른 잠재요인에 의해 설명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귀분석에서의 R2값에 해당되는 것이다(이학식·김지훈 2011). 즉, 해당 요인이 경로를 거쳐 온 다른 요인들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 그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SMC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Heywood case라 하여 모형을 재구성 혹은 수정해야 한다.

〈표 7〉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다중상관지수)

요 인	추정량(SMC)
제도적 특성	0.119*
갈등정도	0.517*
신뢰협력	0.662*
갈등관리수준	0.42*
신뢰성	0.375*
공동체意識	0.545*
지역발전노력	0.589
군의 발전노력	0.626
갈등방지노력	0.526*
군에 대한 인식	0.807
불안감	0.605*
행정연계성	0.245*
정보공개	0.551*
갈등해결	0.399*
갈등관리협의체	0.828
갈등관리제도	0.725*
갈등시스템	0.74*
군의 지역대표성	0.588
군우선권	0.001
언론	0.155*
군의 자원제공	0.54*
정기적 의견교환	0.598
이슈시 의견교환	0.445*
주민 참여자 유도	0.405*

* 0.05수준에서 유의함

확정모형의 화살표방향과 연계해 <표 7>을 보면, 첫째, 갈등시스템의 분산 중 74%와 갈등관리제도의 72.5%, 갈등관리수준의 42% 및 갈등해결의 39.9%는 갈등관리수준, 갈등정도, 신뢰협력, 제도적 특성, 지역적 특성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뢰협력의 분산 중 66.2%, 공동체의식의 54.5%, 갈등방지노력의 52.6%, 신뢰성의 37.5%는 지역적 특성, 제도적 특성 및 갈등정도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셋째, 갈등정도의 분산 중 51.7% 및 불안감의 60.5%는 제도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넷째, 제도적 특성의 분산 중 11.9%, 정보공개의 55.1%, 이슈시 의견교환의 44.5%, 주민참여자유도의 40.5% 및 행정연계성의 24.5%는 지역적 특성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군의 자원제공의 54%와 언론의 15.5%는 지역적 특성에 의해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여섯째, 갈등관리협의체, 군에 대한 인식, 군의 발전노력, 정기적 의견교환, 지역발전 노력, 군의 지역대표성, 군우선권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설명력을 검증할 수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변수를 독립변수의 역할에서 얼마나 설명이 가능한지를 볼 수 있으며, 성과부문에서 갈등시스템(.740)과 갈등관리제도(.725), 신뢰협력(.662) 및 불안감(.605)이 설명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갈등해결(.399), 신뢰성(.375), 행정연계성(.245), 언론(.155), 제도적 특성(.119) 등은 낮은 설명력을 보여 이들이 본 연구모형 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4) 매개효과 분석결과

다음으로 지역적 특성, 제도적 특성, 갈등정도, 신뢰협력, 갈등관리 수준 등 잠재변수 간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매개효과 분

석은 잠재변수 간 영향력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 효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다.⁴⁾ 매개효과 분석결과는 <표 8>에 정리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적 특성이 제도적 특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총 효과)는 .346(p-value = .009)이며, 간접효과는 없어 매개효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이 갈등정도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 .510(p-value = .005)이며, 간접효과는 .125(p-value = .021)로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한다. 이들의 총 효과는 .635로 나타났다(p-value = .014). 또한 신뢰협력에 미치는 간접효과(총효과)는 .474(p-value = .019)로 역시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하며, 이는 갈등정도에 미치는 효과보다 작다. 마지막으로 갈등관리 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총 효과)는 .314(p-value = .009)로 나타나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한다. 즉, 지역적 특성은 총 효과 기준 갈등정도, 신뢰협력, 제도적 특성, 갈등관리 수준의 수준으로 큰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제도적 특성이 갈등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 .360(p-value = .063)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신뢰협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391(p-value = .030) 및 간접효과 .192(p-value = .044)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한다. 총 효과는 .583으로 나타났다(p-value = .051). 다음으로 제도적 특성이 갈등관리 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총 효과)는 .376(p-value = .041)으로 나타나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한다. 즉, 제도적 특성은 총 효과기준 신뢰협력, 갈등관리수준, 갈등정도의 순으로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갈등정도가 신뢰협력에 미치는 직접효과(총 효과)는 .534(p-value = .030)으로 매개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며, 갈등관리 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가 .025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p-value = .905), 간접효과 .336(p-value = .042)로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한다. 총 효과는 .360(p-value = .097)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따라서 갈등정도는 신뢰협력에 큰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갈등관리수준에는 간접효과만 존재해 완전매개효과라고 할 수 있다.

4) 각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ping기법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이는 soble-test에 비해 그 정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넷째, 신뢰협력이 갈등관리수준에 미치는 직접효과(총 효과)는 .629(p-value = .050)로 간접효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표 8〉 매개효과 분석 결과(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구 분		지역적 특성	제도적 특성	갈등정도	신뢰협력	갈등관리 수준
제도적 특성	직접효과	.346 (.009)				
	간접효과	-				
	총 효과	.346 (.009)				
갈등정도	직접효과	.510 (.005)	.360 (.063)			
	간접효과	.125 (.021)	-			
	총 효과	.635 (.014)	.360 (.063)			
신뢰협력	직접효과	-	.391 (.030)	.534 (.030)		
	간접효과	.474 (.019)	.192 (.044)	-		
	총 효과	.474 (.019)	.583 (.001)	.534 (.030)		
갈등관리 수준	직접효과	-	-	.025 (.905)	.629 (.050)	
	간접효과	.314 (.009)	.376 (.041)	.336 (.042)	-	
	총 효과	.314 (.009)	.376 (.041)	.360 (.097)	.629 (.050)	

* 괄호 안은 p-value이며, 검증의 편의를 위해 표준화된 효과를 정리함.

V. 결 론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갈등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적 특성, 제도적 특성, 신뢰협력, 갈등정도, 갈등관리 수준의 요인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여 앞으로의 공공갈등 분야의 연구에 설득력 있는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6가지 가설 중 〈가설 5〉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통계적 유의수준 0.05에서 채택된 바, 독립변수(제도적 특징, 지역적 특징)와 매개변수(갈등정도, 신뢰협력) 및 종속변수(갈등관리 수준) 간의 인과구조 중 갈등정도와 갈등관리 수준 간의 영향을 제외한 모든 영향은 정(+)의 영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지역의 민군갈등은 지역적 특징, 제도적 특징, 신뢰협력, 갈등관리 수준이 서로 유기적인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셋째, 표준화 경로계수 분석결과를 통해 잠재변수 간 영향력은 신뢰협력 → 갈등관리 수준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갈등정도 → 신뢰협력, 지역적 특성 → 갈등정도, 제도적 특성 → 신뢰협력, 제도적 특성 → 갈등정도, 지역적 특성 → 제도적 특성의 순으로 나타나, 갈등관리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은 신뢰협력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각 요인의 향상을 위한 경로와 내생·외생변수를 규명해 구체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역시 표준화 경로계수 분석결과를 통해 갈등관리 수준에서는 갈등시스템과 갈등관리 제도가, 갈등정도에서는 부담감, 신뢰협력에서는 지역발전 노력과 공동체 의식이, 지역적 특성에서는 군의 자원제공이, 제도적 특성에서는 이슈발생시 의견교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어 각 요인의 향상을 위한 주요변수를 규명하였다. 특히 전체 변수 중에서 갈등관리시스템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갈등관리의 제도화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또한 갈등정도가 심할수록 신뢰협력은 높으나 갈등관리 수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완전매개효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갈등정도와 갈등관리 수준은 민·군 양측의 문제가 아닌 지역적 문제인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여섯째, 다중상관자승 분석결과를 통해 갈등관리시스템과 갈등관리제도, 신뢰협력 및 불안감이 설명력이 높아 역시 갈등관리의 제도화가 모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종합적인 갈등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일곱째,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통해 지역적 특성 → 제도적 특성, 제도적 특성 → 갈등정도, 갈등정도 → 신뢰협력, 신뢰협력 → 갈등관리 수준에는 직접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지역적 특성 → 갈등정도, 제도적 특성 → 신뢰협력, 갈등정도 → 갈등관리 수준에는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역적 특성 → 신뢰협력, 지역적 특성 → 갈등관리 수준, 제도적 특성 → 갈등관리 수준에는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갈등관리 수준의 효과적인 향상을 위한 직접효과를 중심으로 갈등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로에 대해서 어떠한 요인의 매개효과가 작용하는지를 통해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갈등관리전략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충남지역의 민군갈등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요인과 인과구조를 도출한 바, 현재 충남지역의 갈등관리는 제도적 장치의 작동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통해 민·군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공갈등 관리전략에 유용한 이론적 분석들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기존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분석수준이 개인 혹은 조직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한데 본 연구는 분석대상과 분석수준을 지역사회 일원으로 확대한 바, 사회현상 혹은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많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분석대상이 충청남도 일원에 한정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의 요인이 포함되어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조심스러운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공공갈등에 관하여 보다 실증적·체계적인 분석과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성민 · 황찬규 · 홍진원 · 홍순근(2013). “공영택지개발사업 갈등원인이 갈등수준, 갈등관리 및 갈등결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11-2.
- 강성철(2014). “갈등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원전안전문화 강좌 자료집』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부산대학교.
- 권영득 · 최병학 외(2007).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태조사 및 유형화 연구』 기획연구 2007-13. 충남발전연구원. 선문대학교 부설 정부간관계(IGR)연구소.
- 김기태(1996). “조직갈등의 관리모형에 관한 연구: 갈등요인과 과정을 중심으로.” 『부산 경상전문대 논문집』.
- 김영종(1996). “지역갈등의 특성과 갈등해소방안.” 『동국논집』 15.
- 박덕근 · 김태훈 · 오정립 · 박정훈(2006). “재난관리체계에서의 군의 역할: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효율화와 국가 재난관리 역량 강화 학술회의 발표논문』 소방방재청. 충북대학교.
- 박동서(1987). 『한국행정론』. 법문사.
- 부산대학교 통계연구소(2014). 『Amos 20.0 사용법을 위한 워크숍 강의자료』.
- 이명숙(2013). “군사기지 입지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갈등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배영 · 전진석(2008). “지방행정조직에서의 지식관리 영향요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 접근.”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선우(2003). 『협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이태근(2014). “행정구역통합에 따른 지역간 갈등의 영향요인 연구.” 『한국거버넌스 학회보』 21-2.
- 이학식 · 김지훈(2011).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18.0/19.0』 집현재.
- 조승현 · 전영옥(2011).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기제로서 로컬 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한국자치행정학보』 25-1.
- 최병학(2004). “민 · 군협력을 통한 통일안보관 정립방안: 국방모델도시 계룡시 승격

- 거버넌스 네트워크 모델과 관련하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부설 평화안보연구소 개설 개념 세미나 발표논문.
- 최성욱·최현묵·김학수(2013). 『지역인재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 정책연구 13-05. 부산인적자원개발원.
- 최인옥·김한열(2012). “갈등관리 활동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공군비행장과 관련한 갈등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0-1.
- 최현묵(2014a). “해양거버넌스 수준 및 구성요인들간 관계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갈등관리연구』 1-1.
- 최현묵(2014b). “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형평성 분석에 관한 연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4.
- 하혜영(2007).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3.
- Bercovich, J.(1984). *Social conflict and Third Parties: Strategies of Conflict Resolution*, Westview Press.
- Brown, D.(1983). *Managing Conflict at Organizational Interfaces: Reading*, MA: Addison-Wesley.
- Deutch, M.(1973). *The Resolution of Conflict: Constructive and Destructive Proces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Harold S.(1963). *American Civil-Military Dynamics: A Book of Case Study* Birmingham, AL: Univ. of Alabama Press.
- Morris J.(1964). *The Military in the Political Development in the New Nations*,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Robey, D.(1982). *Designing Organizations: A Macro Perspective*. Homewood, IL: Richard D. Irwin Inc.
- Samue P. H.(1959). *The Soldiers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 Military Relations*, Harvard Univ. Press.
- Schmidt, S. M. & Kochan, T. A.(1972). “Conflict: toward Conceptual Clari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

● Abstract

The Analysis of Factors and Casual Relationships Influencing Civil-Military Conflict Management Level: Focused on Chungcheongnam-do Region

*Choi, Byoung Hahk**

This study analyzes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Regional Characteristic, Institutional Characteristic, Trust Cooperation, Degree of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level, to find the influence towards the level of regional Civil-Military Conflict management using Linear Structure Equation Model.

As a result, Regional Characteristic affects positively to Trust Cooperation and Degree of Conflict. Trust Cooperation also affects positively to the Conflict Management Level. However, it could not attain statistical significance that explains the influence of Degree of Conflict to Conflict Management Level.

In a lower level, the influences of Conflict System and Conflict Management Institution are most influential, which explains institutional basis is urgent for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In addition, Anxiety has significant influence in Civil-Military Conflict field. Both Regional Development Effort and Community Spirit have the biggest influence in the field of Trust Cooperation.

One fact necessary to be focused on is that the more Conflicts are, the higher Trust Cooperation is but more conflicts do not affect to Conflict Management level. This means that Trust Cooperation is the counteraction on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level is not a problem for only Civil and Military.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conflict management institutions in Chungcheong

* Senior Fellow,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Welfare,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President, Korean Society for the Conflict Management

nam-do are invalid. Thus, it is most important to modify the institutional basis for sustainable and effective regional Civil-Military Conflict.

Key words : Civil-Military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

논문투고일 : 2014년 11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3일

